

마다 쓰는 손사 그릇과 경덕와 칩상과 벼루와 학교에 단일석에 모든 칩권과의  
 복넛는 장 등속사지 이방에잇고 저녁에 잠도 그방에서 형용만이잔다 그럼으  
 로 낮에 바나절을하드리도 건넌방에서 할석가만이잇스며 일흥기에 곤뢰(困  
 懶)하면 전일학교에 단일석에 공부하던 풍금(風琴)도 석사로회롱한다

들압해 셔셔잇는 홍도화(紅桃花)화가지를 씌거다가 류리병에 물을붓고 그속  
 에 섰잔는디 그섯방울은 방안에 짜달흔괴운에 밧셔 섰방울이 불어셔 밧그수  
 림흔 섰봉오리가 보이며 노르스름흔 입스귀도 짝이나오는디 슌의는 화로에  
 불을 두손으로 쫓으며 정진업시 그병에 섰치인복스가지를 바라보니 온전흔  
 정신으로 그가지를 바라봄이아니라 실상은 다른싱각을하느지 주목하야 보는  
 것이업고 다만 얼골만드러 정진업시 바라보는디 그들저손가락에는 골무가세  
 여잇다 또흔편에는 바나절하노라고 바날을제여노은 옷감이노여잇다

스슬의는 먹기를 적게하고 밤에잠을 일루기어려워흔이후로는 스스로질기여이  
 와갓치고 요흔방안에 홀을노안져 곱히 무삼싱각만하고잇다 그러하느 그부모  
 드른 그섯의 곱히싱각하느일을 아느지 별노히 동작의고이홀을 힐문치도아니  
 하고 다만싱상히 보고만잇다

이날 리슈일은 학교에갓다가 느치셔 도라오니 집안은 비인갓갓치 적々하야  
 인척(人跡)이업는디 다만 건넌방에서 슌의의 기침소리가 들나더니 그후로는

다시 적々흔지라 슌의는 나의도라움을 아지못하느가하야 밧자최를 뇌이지아  
 니하고 건넌방지게문 읍헤이르러 조고만치 터진문틈으로 드러다보니 슌의는  
 칩상압해안자셔 두손은화로가에 을녀눗코 머리는 곱푸려 칩상가에다이고업  
 디엿다가 다시얼골을드러 영창문을 정진업시 바라보다가 천장을향하고 길게  
 한숨지으며 후시는 무슴소리를듯느지 귀를기우리고 아름답고 영농흔눈을바  
 로쓰고 묵묵히잇는것은 진정으로 보는것이잇고 드러려 하느것이잇셔셔 그리  
 흠이아니라 곱고곱히 가슴속으로 무삼싱각을하고 잇는모양이라 그모양은 전  
 실로 입으로말하지 아니하느 마음으로 번민(煩悶)하고 난처하야 하느형상이  
 외모(外貌)에 나타난다

슈일이는 슌의의 이와갓흔모양을 고이히녀이며 더욱 그 하느양을보고조흔  
 다 슌의는 조곰잇더니 다시고귀를슉이고 두손을 칩상우에 을녀노으며 몸을  
 칩상에실니고 쓰러진다

몸을슉기고 문틈으로 여허보던 리수일은 그곡절을 아지못하야 눈섭을썩기고  
 싱각하느다  
 무삼일로 저와갓치 근심을하느고 저렷듯 근심홀일이 싱기였스면 무삼싸둑으  
 로 나에게말을 하지아니하느고 그연고를 썩닷기에 어려울뿐아니라 그와갓치  
 근심홀일이 엿더흔곳으로 좃츠싱기였느지 또흔 의심하기를 마지아니한다



이러듯 리유(理由)를 해석(解釋)고조하나 도저히 못지아니하고는 알지못할 리라야 다시문틈으로 드러다보니 순이는 오히려 최상에 업티였는디 머리 에셔샨던티모빗(玳瑁梳)이 어니틈에 내려져서 최상우현머리에 썩러져잇스나 오히려 아지못하고 업티였다가 인긔척에 삼작놀니여 치여다보니 슈일이가 열 해와서 안젓는지라 순이는 삼작놀니여 훗터러진머리도 슈습하며 썩러진빗도 집어 다시씻고 쇼곰이라도 조긔의스색을 보이지아니하고 가리우고조한다

「아 삼작 놀니구려 지금학교에서 오시는일이요」

「응 지금오는일이요 온들은 안가방에서도 어디들가섯소」

「네 어디 나드리 가섯지요」

순이는 조긔에얼골을 유심이 드러다볼을 붓그리여

「무얼 그러케 남의얼골을 드러다보아」

그러는 슈일은 순이의 얼골보기를 마지아니한다 순이는얼골을피하야 모호로 도라안지며 공연흔손장란을 하고있다

「여보순이 어디가 불평하오 괴석이 미오죽치못할 모양이니 아—니요 아무런치도 아니헌데—웨요」

함며 순이는 락연이 디답하고 반지고리를 잡아다리여 일감을 손에든다 슈일은 모자쓴티로 최상머리에 흘팔을늘너눅코 순이의얼골을 모호로 볼그림이바

라보며

「저러하거덕문에 너가항상 정답지가못하다고 말을하지 이렷케말하면 순이는나다려 의심이만으니 신경(神經)이 과민(過敏)하니 말을하지말은 실상 인즉 순이가 스름이 너게는 너무범연하여」

「글세 오후지도안코 아무런치도 안을것을……」

「그러면 아무런치도 안은스름이 웨정신업시 무엇을 생각하고 각금한숨을 쉬이며 답々히서 못견디여 너가 악가부터 이문밖게서 죄다 엿보았셔요 그러는 참 무스병이잇서 그리하는 혹은 무산 근심이싱기여서 그리하는는 다 러 말못할것이 무엇이요」

순이는 그말에 더욱 디답을바를 아지못하고 바나질거리만 이리뒤쳐 저리뒤 쳐하고있다

「몸이 어디가 불편하여서 그리하오」

순이는 다만 머리를 좌우로흔든다

「그러면 근심하는일이잇셔서 그리하오」

순이는 썩흔 고기만흔든다

「그러면 엿지하여서 그리나나는 말이야요」

순이는 가슴속에서 두방망이질을 흘뿐이오 진실노든지 거짓으로든지 디답을



능히 흘리게 업고 다만 임의 범흔죄를 은휘치 못함을 설다름은야 공구「慚懼」한 마음에 몸이 떨리는 것보다 엇지 대답을 하면 조흔는지 아지 못하야 주저하는디 엽해는 슈일이 가 안차셔 더욱 < > 디답을 저촉함이 몸은 점점구석으로 세여 박히는 것코고 등에서는 찬삼이 줄줄이 흐르는도다

「글세 엇지하셔 그러흔지 말을 좀 못하단 말이요

슈일의 목소리는 조곰 높하졌스니 그는 다름아니라 순이의 말아니함을 고이히 생각함이라 순이는 마지 못하야 임시변통으로 말을 한다

「웬일인지 나도 알슈업셔요……요스이 삼일째는 웬사된인지 공연히 여러 가지로 안들 생각이 업시나셔……이 세상이 다 우수운 것코고 공연히 심난 만히요」

슈일이는 순이의 하는 말을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

「스름이란 것이 오늘이 몇케 스라잇셔도 어니날 어니시에 죽어 바릴는지 알 슈잇쇼 이 몇케 살아잇스니사 절거운 것코히도 그디신에 괴로운 일도 만코 설은 일도 만코 난처흔 일도 잇슬 것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이 세상이 우수고 가 슈로 위요 우연이 요스이는 미일이런 생각만 하여지고 마음이 괴상스러워져요 니가 너 생각을 하야도 웬일인고 하지요 그러디 지금 너 얼굴이 보기 에 병잇는 것코소

눈을 감고 저서히 듯고 잇던 리 슈일은 서서히 눈을 뜨며 다시 미간(眉間)을 찡푸린다

「응 그런 것이 죽 병이지

순이는 머리를 숙이고 묵묵히 안져 잇다

「그러나 그러타고 심너하지는 마려요 심너를 하면 도로혀 병에 허로울터이니

「아니요 심너하지는 안아요

하며 말하는 목소리가 처량하게 나오니 그 말이 슈일의 귀에는 엇더하게 들니엿스리오

「그것이 모다 병으로 하야서 이러나는 증세야 아마 뇌(腦)가 죽치 못하가 보오 지금 순이가 하는 말과 코치 그 전 생각을 흘렸코흐면 하로 할시라도 웃고 지날 날은 업스리다 윈리 세상이 라는 것은 그리즈미 잇는 것이 못되는 물건이요 쓰스름의 몸코치 알슈업는 것은 업슬 터이야 그논과연 그러하지 만은 그러타고 모든 세상이 스름드리 그런 생각만 흘렸코흐면 세계(世界)가 말썬 절각이 되고 말게 밋을 슈업는 것은 세상이 라하나 그와코치 밋을 슈업고 허황흔 세상이 온디에서 간절이 락(樂)을 구하려고 우리네 사람이 모다이 렷듯 각각 할씨 일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흔디 그러듯 생각하고 심너를 하면 밋을 슈업고 허탄흔 세



상에 스름으로 생각하여서 나온 이상에 난 아모리 하여도 다시 난 엇지 흘슈가 업  
 는 일이니 사 아모리 허탄 망나 혼 제상에 서라도 얼마콤 저미 있게 제상을 지내  
 고 저 생각할 슈밭게 업소 그런고로 저미 있게 지내려면 무엇이든지 락이 잇서  
 야 할터인디 혼가지의 락(樂)을 혼번정하면 결단코 제상이 우습고 허탄 하지  
 안는 법이 윈다 그러니 사 순의는 입디서 지 락이라 하는 것이 업구료 이렷게 락  
 이 업스니 사 이제상에 살기가 저미가 업다고 할만 할 락이 업는 것이 로구료  
 순의는 아름다운 눈을 드러 구하는 바이 잇는 것갓치 슈일이 가 얼골을 들닐썬  
 마다 슈일의 얼골을 모르게 바라본다

「썩 업지 그러소」

순의는 우습을 먹음는다 그러나 그 우습이 심히 괴로이 보인다

「그러 정년 업소」

슈일은 순의의 억기를 잡아 압흐로도 도커려 혼죽 순의는 남저의 하는 디로 맛기  
 에 몸을 슈일에 압흐로 도리키나 오히려 얼골은 붓그리워 엽흐로 돌니 인다

「그제 잇소 업소 좌우간에 말을 히야지」

억기에 언진손은 오히려 나리지 아니하고 순의의 몸을 혼드니 순의는 억기우에  
 언치여 잇는 손이 천근 철택되로 나려 누르는 것갓하야 마음이 편안치 못하코 다만  
 찬삼이 등에서 흐름을 섞닷갓더라

순의는 은근이 슈일의 안식을 살피여보니 평일과 다름이 업고 작년에 말로하  
 는 모양이라 그 얼골에는 일점노기(一點怒氣)도 업고 도로혀 입에는 우음을 섞  
 엇더라

「나는 아조 크고 큰 혼가지 락(樂)이 잇서서 이제상이 엇지 유쾌하코 저미 잇  
 는지 혼시각이라도 지내여 가는 것이 엇지 앓가운지 모로갓서 나는 제상이 저  
 미가 업서서 이락을 구혼것이 아니라 이려 혼 락(樂)이 잇는고로 이제상에서  
 살아 잇는 것이요 만일 이제상에서 이락이 업서지면 제상도 업고 리슈일이 라  
 하는 명칭도 업슬터이오 나는 그 락과 성스(生死)를 혼가지로 할터인디 여  
 보순의 아마 불업지

순의는 전신에 피가 일시에 어름갓치 울을 견디지 못하야 떨기를 마지 아니하  
 며 심중으로는 스식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야 나오지 아니하는 말을 억지로 감  
 작하야

「불업고 말고」

「정말 불어울 것갓흐면 다른 스름은 참 막무가내 하지 만은 순의야 논아 주지  
 아니 흘슈가 잇는」

「그럼 어서 주어야지」

「에! 다 주엇버려라」



하며 슈일은 양복주머니 속으로부터 죠희주머니에 너흔것을 꺼내여 칙상우에  
을너노으니 손을뚝 떼히미 죠희주머니의 입이열리며 동글동글한스탕이 도르  
룩구을너 하여져서나오니 이는 순의가 항상질기여 흥난과즈더라

제륙장 懷舊 (회구)

그잇흔날 순의는 슈일의 전하는말에 거역하여려워 병도업건만은 병이잇는체  
하고 의원의진찰을 받았더니 의원은위병(胃病)이라하야 흥병의 물약을주는  
지라 슈일은 과연위병인줄알고 의심치아니할였다라 그러나 병지는약먹을것  
이 아난줄아나 슈일이보는엽혀서는 혈일업시 약을먹는체한다

순의는 은근히 근심하기를 날노마지아니하야 그표면(表面)에는 현저(顯著)  
히 보이지아니하나 그가슴 갑흔속에는 슈화상극(水火相克)되과갓흔 고통(苦  
痛)은 놀이갈스륙 점점더할썸이오 조곰도 감음이업다

리슈일은 순의의 가장련련(戀戀)히 사랑하던사람이라 그러나 고이항도다져  
녀지는 요사이로부터 점점이와즈치 사랑하던남자와 서로되하기를 두려워호  
다 보지못하면 진정으로 보고즈하느마음이 간절하나 서로얼골을티항면스  
로 두려운마음이싱기고 등에는 찬썸이흐르느듯하다

순의는 슈일의 정다운말과 간절하마음에 보고싱각할썸마다 살을어이는듯  
마음과 몸쇼리가나는듯한 두려움이 이러는다

장 한 몽

장

순의는 이와즈치 슈심에 싸인후부터 슈일은 병이잇서서 그리홀인가하야  
평일보다 더욱 순의에게 향하마음이 간곡하고 천절하야 지는고로 순의는이에  
일으려 죽기를구하나 엇지못하고 살기를구하나 또흔엇지못하고 다만정신이  
살관하야 머리는묵업고 몸은항상 쇠약지못하야 중병을겪고 간신이소싱하야  
이러는사름과갓다

순의는 이와갓치 근심으로 놀을보내고있더니 드되여 괴로운근심을 그부모에  
게 말하얏는지 흥은그부모가 순의의심중을 헤아리고 혼일인지 또는그외에  
무슨스실이잇섯는지 하로는 그모친과 흥가지로 흥련급스히 흥장을 수습하야  
가지고 길을떠나갓더라

적적히 비인집에 호을노 안스방에안져잇는 심탁(沈澤)은 호을노안자 담비되  
를물고 무슨싱각인지 하고잇는모양이러니 벽에걸니여잇는 골뢰(骨脾)주머니  
를내여 오관을떠이고있다

심탁은 지금나히 오십이 조곰넘고 육심은 아즉멸엇스되 머리에는 백발이 반  
에지내였고 길게기른슈염도 룡철분은 희엿더라 얼골은 슈척하엿스나 쇠모  
(衰鬚)호모양은 보이지아니하고 미목(眉目)이 온후(溫厚)하야 구히공손(恭  
遜)호스름이러라

조곰있더니 리슈일은 학교로부터 도라오는지라 슈일은 순의의모녀가 흥련집

장 한 몽



에잇지아니하고 심탁로인만 집에잇슴을 고이히녀넛스나 유심히 못지도아니  
 하고 동정만살펴본다 그러나 놀이저물도록 도라오지 아니하는고로 더욱 슈  
 상히녀이여 심탁에게 연고를물으니 심탁은 긴슈염을 서서히쓰다드무면서 허  
 웃고

「순이모녀는 오늘별안간에 평양으로떠나느니라감안이 눈치를보니  
 서순이의병으로하야셔 어디가셔 무러보았나보드라 그리셔 무러본즉 그티  
 답이 평양엇더한산에가셔 괴도를 멧칠만드리면 낫겟다고 말함모양이야 산  
 에기도한다고 병이낫겟느냐만은 아모것도모르는 녀편네들의고집이 말니는  
 스품의말을 어디듯느냐 그러면 평양나려가셔 구경이냐고 오라고 보내엿  
 다 하고심허하는것을 못함면 이후에 내탁을가무셔워셔  
 슈일은 그말을 드르미 의심이 여러가지로 나는모양이라

「그러는 아모리 괴도를가시기로 그닥지는 급작시리느니라가신다 말슴이온  
 나가  
 「너역시 엿지흔영문인지를 알슈업다  
 「그러면 평양셔는 몇척이느 묵다가 올느오신티요

「내역 그말도 무러보지 아니하엿지 그러치만은 스오일밖에 더욱어오기디  
 리슈일은 의아한마음을 진정치못함며 다시는 말이업고 다만 고기를기우려하

편벽만 바라본다 슈일은 옷을벗고아 입고차하야 조리의 거처하는방으로  
 내려간다 떠나갈세에 순이가혹시 나에게 편지나써서두고 간것이 업난가하야  
 최상아리우로 왼방을 모다츠조보아도 순이의 글入받은 흔아도업난지라 급々  
 히떠나가난스이에 아마쓸틈이업서 그러함이니 내일은 필연우체로라도 편지  
 가 오리라하야 다시마음을 돌니엿스나 조연히마음은 쾌락(快樂)지못함다 슈  
 일은 오류시간동안을 학교에있다가 도라올은 향로入동안 주리엿든마음을가  
 장아름다운흔녀조의 얼굴로 위로코조함이어늘 이들은 공연히 주린마음만품  
 고비인방안에 위로호출티업난 최상을향하엿더라

「스름도 참 정답지못함다 아모리급히 떠난다하기로 말함마디도 잠깐 써  
 늦코 가지못할단말인가 잠간어디로 동리출입흔것도아니오 몇척이될난지모  
 로난길을 떠는면서 말함마디가 업슬수가잇는 떠는갈세에 편지난하던지 못  
 함던지 그것은 오히려 들췌어니와 괴도던지 무엇이든지하러 먼곳에를떠는  
 갈줄알면 미리는다려 의론함마디를 흘것이지이 올치별안간에 가게되엿셔  
 아모리 별안간에 가게되엿기로 오늘아니떠는서 낭피될일은 업슬것인티 아  
 모리 어른이떠는차고 하시드리도 나에게 향함마음이 잇슬지경이면 핑계라  
 도하고 날짜를물녀셔 내가학교에서 도라오거든 조용이 나를보고셔 나난  
 내일 엿더엇더할일로 어디를떠나가오하고 말함마디만 하엿스면 오췌이느



정다올가 정답기도 할거니와 도리상으로 말하드리도 명석이 그리도 니가져  
의.....그러나 그사람은 너얼골을 보지아니하고 찌는가도 섬섬할마음이  
업난것이지

티체로말하면 너편네라 할난것은 스나회보다 상냥하여서 정이더흐법인디  
이러듯 범연할것을보면 느를사랑치 아니한다고 생각할수밖담업다 그러치  
만설마그사람이 느를사랑치 아니홀리가잇나 걸단코 그게리난 만무하지  
그러는 니가져를 사랑할난것갓치 저난느를 사랑하지 못흐모양이야

티체 그스름의 성질이 원리냉담(冷淡)하여 그런고로 너편네 다운데가져  
어그스름으로 내가 생각할난것갓치 정답지가 못하고 범연홀디가 만은것이  
야 아희썩부터 그런성품은 잇난것갓히도 지금갓치 심하지난 아니홀줄아난  
디

가령말하면 어렸슬씨에난 범연하다가도 장성하여지면 점점정다워져야 홀  
터인디 그러치가 못하니 웬일이고 점점 점잔아지니서 범연적고 붓그러워그  
리하나 아모리 생각하여도 의심스러워 의심아니할수가업서

내가 그스름을 사랑하노마음을 비유하여보면 거의.....거의가아니라 전혀  
짜져잇는 모양이야 내가 너생각을하여도 엇지하여서 이답지 짜져는지모  
로깃서

이러듯 나는 조괴를사랑하니 그마음을 받드리도 조곰은 정다이하야 홀터  
인디 그러치를못하고 엇더흐씨는 아쇼 타인(他人)디점하듯하지 오날일로  
만말을하드리도 일일수가잇는 이것이서로 사랑하노스이에 정분이라홀가  
는논 그스름을 너도갑히 사랑하노스름으로 일연일을 당홀씨는 더미워못견  
디깃지 지금 이자리에잇스면 좀씨려라도 주깃네

엇지하면 이럴수가잇나 편지에다가 이런말을 모다써서 가져잇는곳으로 붓  
칠가보다

아서라 소위는 생각하면 좀나물아도 마하지만은 성호몸으로 가져잇는것도  
아니오 병중으로 잇는스름을 걱정식은것도 불가하다

너가 생각하여도 엇더흐씨는 너모생각을 과이하야서 신경과민(神經過敏)  
스증이 업는것은아니야 그러기에 그스름이 항상말하기를 나다려조겨지심

(自格之心)이 만라고하지만은 너가정말 조겨지심이잇는지 혹은그스름이  
정이듯답지못하여서 그러홀지 이것은 혼의문(疑問)이로다 그리홀고 너가

또홀가지 생각하노일이잇지 그스름이 너의게하노것이 서허홀제마다 느를  
업수히녀여서 그리하노하는 생각이느지 느는이집에 붓쳐여잇는 스름이라  
일을터이면 속담에 더릴스회라하니서 느를업슈이여는가 하는생각이 일  
상잇서.....아니다 그러치아니하다 만일느를 더릴스회라고 업수히녀일



것갓흐면 처음부터 사회로정홀리가 만무하지 그러하기로 항상그스름개아  
 편잔을먹지 조곰이라도 그눈치로말을흐면 그스름은 티단히노여워 호는것  
 을보아도 나를저의집 더릴사회라고하여서 멸시하지안는일은 분명하다 스  
 스로 너가너 생각을하야도 자겨지심으로 그러호것이 분명하다 오허려너  
 가그런생각을 하는것이 어리석다 그러는 만일저스름의 마음속에 추호(秋  
 毫)만치라도 나를그렇게 티점하는것이보이면 옥황상제(玉皇上帝)의 쌀이  
 안히가 되얏슬지라도 나는그인연은 살아바리고 말러야 스는희죽식으로  
 행동을 결벽(潔白)하게하지 나는이정(愛情)의스름으로 잡힌것은 되얏슬진정  
 결단코 이정(愛情)의 노예(奴隸)가 될마음은 아즉없다  
 만일 이인연을 싣코보면 혹시나는 그스름이 보고심혀서 보고심흔마음에  
 말느죽을는지도 모로기다 혹시죽는티서지는 일으지아니한다 홀지라도 아  
 마 실성(失性)은 될듯하다  
 응 밋차드리도 관계치아니한다 너몸은 어너지경에 일으던지 도라보지에  
 니호고 인연은살어바릴러야 스는희죽식이 그러듯 비루(卑陋)한 설을보  
 고야 그집에 었지부터 잇슬슈가잇는  
 아모리 생각하야도 이런생각은 모다나의즈겨지심인지 그러케 영니호스름  
 으로 그러헌마음을 조곰인들 먹을리치가잇는 그마음이 업는줄은 는도모로

는것이 아니지만은 다만너의게향하야서 너마음갓치 정답지못호것은 분명  
 하다 그리고 호는것이 다 냉담(冷淡)하야서 설면호단말이야 설면호고로  
 정답지못호지 나에게 티호이정(愛情)이 그와갓치 설면호마음을 익이도록  
 정이들지 못호였는지 혹은 원리도 설면호성미를가진 스름의이정은 이러호  
 것인지 이러호일은 크게연구호문제로다  
 슈일은 항상마음에 만족지못호일이 잇슬때마다 반다시 이문제를가지고 갑히  
 연구하나 그러는 일즉이 히석하야 었지못호였더라 그러는 금일은 이문제를  
 었지히석하야스리오  
 그잇흔날 오후에일으러 평양으로부터 우체로 편지호장이 리슈일의슈중에 써  
 러지나 다만 호장엽서(葉書)로 길에서 무스히 평양까지 도달함과 머무르고  
 잇는 여관(旅館)의 동호슈를 동그함에지너지 못호였스며 편지에는 순이(順  
 愛)의 필적(筆蹟)이써엿더라  
 슈일은 편지를바다 일세를다함이 홀연두손으로 쫓각쫓각이찌져서 방안호구  
 석으로 너여더진다 이썩에만일 순이가 그압해 잇섯던달 리유를 변명(辨明)  
 하기 능호였스리니 그너즈가 친히 또는 정다히 발명하는말에는 아모리 크게  
 노기(怒氣)가 일어났다홀지라도 슈일의마음은 티양빛해 어름녹듯 호였슬러  
 이라



장

한

몽

슈일이논 슈이의 압해서논 노염과 한과 근심을 모다이져바리고 다만화락(和樂)은 마음만 잇는터이라 그러는지금은 그와갓치 어업선업골을 보지못함을 심히 락망(落望)되야잇거늘 그우에 더욱정답지못흔 편지를 보앗스며 또는 변명할스름도 잇지아니호고로 슈일의 로기(怒氣)는 마른섭혀 불일어나듯하야 화염(火炎)이뒗칠바를 아지못흔과갓도다

이날저녁에 슈일은 심탁(沈澤)과 혼가지로 석반(夕飯)을과하고 등잔불아리 에 응서(翁婿)두스름이 서로티하야 적사히안져잇스니 심탁은 호을노심사타 하야셔 슈일을 머무르게하야 적막함을 잇고즈흔이라 그러는 슈일은 묵묵히 안자셔 유쾌치못하야하논 괴석이 의양에 낫타는다 심탁은 한참이논 슈일의 열골을 바라보더니

어디가압푸냐 잇지하야셔 괴운이 혼아도 업셔보이는냐

「네 가슴이조곰 압픈것갓히요」

「응 가슴이압푸다니 그리셔야 쓸슈가잇는 터단이압푸냐」

「아니을시다 터단치는안습니다 인제긋 낫깃습지요」

「그러면 츠는호잔다려먼지」

「네 잇다가다려먹습지요」

비록 너의마음속으로는 분한(憤恨)이 잇슬지라도 그분한마음을가지고 다른

장

한

몽

스름에게 디하는것은 심히은당치 못흔일이라하야 스스로 억제하야 괴석을낫타니이지 아니하고 나의거쳐하는방으로 느려가셔 마음을상케 하논니보다 스름과셔로향하야 근심을 슈작스이에 이즈만갓지못하다 생각하엿는고로 마음을 억제하야 천연한티도를 보이고즈하나 조곰하면 마음은 비인공중으로 날아가고 심탁의하는말이 귀에들어가지아니하다

오날오는편지에 만일정이가득흔마음으로 즈셔흔스정을 써셔보너엿던덜 너의 마음이얼마콤깃거워스리오 오히려 혼집안에서 항상업골을 디하고잇는니보 다 써나잇셔서 서로그리워하논것도 질거움이 기쁠것이오 말업시 써는감을 원망하논마음도 가히이져바리고 쥬야로 그편지만가지고 열골을보지못하논티 신으로 자조너여보아서 괴럼흔도 질거울지라

그녀즈는 급작이떠는가되 말흔마디 고흘이업고 경솔이흔일을 너가필년 분로 할출은즈고도 모르지아니하리니 그것을알면 다만흔마디라도 편지속에 정다운말을써셔 너마음으로하야금 위로케하야쥬지 아니하야 그말흔마디가 너마음에얼마나 깃거워들닐출도 필연자셔히 알깃거날 느를사랑하논 그스름이 엿지하야 그일을 하지아니하논고 이렇듯 정이듯럽지 못흔계상에서 저너즈는 방황하논가 이상흔일이로다 이상흔일이로다하며 슈일의가삼은 다시산란하야 공중에서 방황하논티 홀년엽혀 안자잇던 심탁의 목소리에 쌈씩늘너여 너정



신으로 다시도라왔다

「네에게 할말이 조금있는데……말하기가 어려운일이라

웃는것도아니오 성는것도아니오 비웃는모양같은얼굴로 말을얼푸시 하지못하고  
고 쥘저하는심티(沈澤)의거동은 평일에는 일즉이 보지못하던 얼골과갓치 슈  
일은 쇠다랏더라

「네 무슨말삼이온이가」

신티은 반박이넘은 긴수염을 두손으로 썩々부비여 아리로 쓰다듬으며 다음  
에할말을 생각하는모양이라

「네 일신상에 티흔일로하야셔……」

하며 간신히 그말을할뿐이오 다시쥘저하며 다만수염만가지고 괴로이쓰다들  
는다

「너도 여러히 열심하야셔 올에는 졸업이될터이지」

수일은 별안간에 공손한마음으로 단정이 썩러안는다

「그러니셔 인제는 나도흔숨을들났다 너의도라가신 아버지씨덕히셔도 은  
혜에 만분일이나 아마갑하슬듯하다 그려고로 너도 더욱더욱 정신을차려셔  
더욱 공부를하야야 아니하겠느냐 이학교를 졸업후라도 더 공부를식여셔  
이제상에서 상당할디위(地位)를 잇도록하지 아니하면 너의본의가아니다

그런고로 이후로는 일본으로든지 서양으로든지 유학(留學)을 보너여셔 유  
명훈인물(人物)을 만다라야 할터이니 그러면 지금도 너가멋히를 발분망석  
하야셔 네일을보아주어야 할터이로구나 응아니그러하냐  
이말을들은 수일은 털승(鐵繩)으로여기를 결박한것갓치 몸이묵어움을 쇠닷  
깃스며 심중으로논 괴로운괴운이 소스나온다 그은혜의 과되「過大」함을인하  
야 다시평일에 지닌일을 살피어싱각한다

「네 진정말씀이지 큰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에 입으로는 감사할말씀을 무  
엇이라 고 말할수업습니다

전일에 저의선친(先親)은 얼마나되는 은혜(恩惠)를 제쳐주셨는지는 알  
수업습니다만은 아모리하야도 일엇듯후하게 은혜를갑을수는 아마업는듯하  
오이다 지금와서는 전일선친의일은 엇지하얏는지 저는저티로 이은혜를어  
나떡든지 갑호려고 싱각합니다 선친이 도라가신후에 만일여과셔 저를다  
러다가 길너쥘사지 아니하엿드면 저는지금 어디셔무엇시되여셔 잇슬는지  
몰을것을…… 지금 그싱각을하면 이제상에서 저와갓치 다행흔 신세도 업  
는줄입니다」

「네가 그럿케마음을 먹으면 너역시 신이는다 그러는 할가지 네에게청을할  
일이잇는디 들어쥘깃느냐」



「무신일이온지 제힘에 자랄만한일이면 무슨일이든지 할라시는데도 할것슴  
니다」

수일은 이와갓치 티답항기를 쥘려항지 아니할앗스나 그러는 마음속으로는 위  
티히 아난바이 업지못함은 아니로되 스름이라하는것이 이러흔말을 할뉘에는  
열에아혹은 능히허락지못할일을 강임항야 허락을밧고즈항야 먼저시험항야보  
는말이라

「다른일아니라 순이의일인디 .....순이를 시집을보내려고해서 그의론을  
.....」

그말을듯더니 수일의 놀는모양은 눈으로참야 보지못할나라 그러나 수일  
은황망히 천연히 티도를 어지리지아니하고 묵々항야 말이업다

「어일에 티항야셔는 노도여러가지로 생각항야 보았지만은 나도크게 생각  
항는바이잇셔서 그리흔일을항였다 너도지금부터 몇칠아니되면 학교를졸업  
할터이니서 졸업항거든 스오년동안 일본으로 유학을보내여 줄터이니 유학  
항야서 졸업항후 귀국항거든 너는다시 극가항규슈(關秀)를 티항야셔 장가  
를보내줄터이니 네싱각에는 엇더항나」

만일 너의목숨을 달나고 필박항면 그뉘에 스름의마음은 엇지항리오 티경실  
직흔 수일의얼굴은 다만심턱의 얼골만바라보고있다 심턱은 심히괴로운 모양

으로 다만 수염만부비고있다

「전일에는 내가너의게 금석갓치 약속을항여놋코 지금와셔 다시싼소리를  
항는것은 너역시 무안항야 할말이업지만은 이일에티항야셔는 내가몇달몇  
칠을두고 김히싱각항일이 잇는고로 조곰이라도 네게당항야셔는 허롭게항  
지아니할터이니 티럭긋만치라도 염여말고 순이는 다른곳으로 시집보내게  
항여라 응

수일의 티답항기를 한층동안이나 기다리는 숨흔번을 크게슈이지 아니하고묵  
묵히 안자잇는고로 심턱은 무류흐마음을 억제치못항야 어름어름항다가

「내가 지금항는말을 잘못알아들어서는 내가무엇이라고 할말이업다 기의를  
다른티로 시집보낸다고 나와스와스이가 전만못항야 질바도업고 너는또 일  
본으로 유학을석여 줄터이니 조곰치라도 낮부게듯지는마라라」

이위 약속항순이를 이제별안간에 다른티로 보닌다항니싸 아마너는 부족히  
싱각할듯항다만은 결단코 그런것이아니니 네가시원스럽게 왜이허락항야  
지.....또 널로말을 허드려도 공부를 잘항야서 큰스름되기가 네원이아  
니나 그러니셔네 본뜻만 여의항게 성취항면 제일이지 순이항고 너외가되  
고안되는것이야 무슨크게과페될일이 잇깃느냐 너도감안이 싱각항야 보아  
라 그것치안으냐 그러는 이것은 티말이니셔 너는혹시 듯고즈항지 안을는



지도 알수업다. 그러는 네가야만 일느 허락을 하지 아니 할듯하기에 너다려  
청할 것이 있다고 할말이다. 너를어렸슬 때부터 오늘날까지 도라보아 주었거니  
와 오늘날 이후로도 네가 성인(成人) 할 때까지는 도아서 줄더이니 그 은혜를 네  
가 감추려거든 지금 너 말을 허락 할야 다고」

수일은 담은 입살이 떠니며 눈에 눈은 근히 눈물을 먹으며 평일과 못치 너 이  
고 조하는 목소리는 자연히 쉰니여 전일수일의 낭낭한 음성이 아니라

「그리하면 아모리 할야도 전일언약은 파괴 할 것다. 하시느 말씀이 온니가」  
「아니다. 꼭 이전혼약(婚約)을 파괴 할야 한다느 말이 아니라. 덕체네 마음은  
엇더 할야 아모리 은인(恩人)의 청이라도 듣지 아니 할고. 또는 조귀의 형실에  
홍첩이 되드려도 너는 관계 할지 아니 할고. 하늘이 두쪽에 느드리도 수일은 남을  
주지 못 할 것다. 하는 말이나

「.....」  
「설마. 그랬치안치 너인들. 료량이 업기다」

.....  
임을 담을고. 말을 낼지 못 하는 수일의 가슴에는 경위 업고. 너욕심만 쳐우는 쇼  
리에 분음을 이기지 못 할야. 책망 할 일과 칠분 할 일과 설명을 일과 여러 가지로 홍  
중(胷中)에서 비등(沸騰) 할 것만은 심턱은 수일의 하늘은 은인이라. 사실의

사비곡즉(是非曲直)을 물는 할고. 엇더 할 일에 덕을 듣지. 그 말은 능히. 거역 지 못  
할리라. 생각 할였슴으로 피가 흐르도록 허를 쳐 물고. 말은 할지 아니 할리라. 결심  
할 았더라.

수일은 또 한 가지를 생각 한다. 은인(恩人)은 은혜를 착가(捉榘)와 못치 사용  
(使用) 할야. 이와 못치 펄박 할나. 나는 이 러 할 착가(捉榘)로 할 여서느. 몸을 굴 할  
지 언정. 저로翁(老翁)은 엇더 할 날 같은 장기로써 나와 수일의 인정(愛情)을 버  
히고 조하는 고.

수이가 너의게 향 할 의정이. 나가 수이의게 향 할 사랑과 못치 두렵지는 못 할다 할  
나. 나를 헌신(弊履) 못치 바릴 지경에 이르도록은 수이가 너의게 향 할 정이 넓  
지 아니 할지라. 저 수이만 느를 멀니. 바리 지 아니 할면. 착가(捉榘)도 소용이 업슬  
것이오. 은인의 목어 운 말도 두려울 것이 업슬 지니. 다만 이제 밋고. 바랄 것은 수  
이의 마음은 아 썩이로다. 수일은 이와 못치 수이의 마음을 생각 할고. 심턱의게 덕  
할분고는 힘써 풀고 조한다.

나는 항상 수이의 너게 향 할 의정이. 두렵지 못함을 의심 할 았더니. 이와 못흔 고  
회(機會)는 가히 수이가 느를 사랑 하는 힘이 얼마느 됨을. 죽히 시험 할 리로다.  
「다르데로. 시집을 보니 것다 고 할지니. 그러면 어댄지. 덕 강유의 할야. 두신 데가  
잇슴 잇가」



「응 잇기는 혼곤디가잇스나 아즉완정혼일은 아니로되 동디문안비호기(東大門內梨峴)근처에 김산은행(金山銀行)이라하는 은행이잇는디 그은행은 그근처에사는 김형순(金瑩淳)이라고 유명혼 지산가로 조괴홀로세운 은행인디 그김형순이가 순이를 조부로삼기다고 동혼을흥기에.....」

김형순(金瑩淳)의 아달이라하니 이는곳 지나간 정월십오일에 다동김쇼사집에서 웃노리홀떡에 만노보던 오릭원자리 금강석반지세였던 김중벽(金重培)로다하고 수일은 그윽히 조소(嘲笑)하기를 마지아니한다 그러는 쯤는 의외이사람이 낫타남을 놀너엿스나 다시도로혀 수일은웃는다 이는결단코 의외라말하지 못홀지라 이세상에 조곰이라도 눈잇고 지각잇는사람이면 누라셔우리순이코치 아름다운얼굴을 사랑치아니 하는지잇스리오 그러는 다만 의심나는것은 심덕의마음이로다

너가 심여세쳐부터 심여년동안에 일으기까지 언약하앗던 혼인(婚姻)을 무슴얼굴을들고 파괴하깃다 말하는고 나히점점 만아가니 로망이낫는가 혹은실성을하얏는가

순이를앗고 조하는스름은 금강석(金剛石)이로다 금강석이 아모리세계에 유명혼보리라 홀지라도 순이를닷도아 승부를결단하는 마당에는 보비되지못하는수일의 현을능히 익이지못하고 스스로희야 도라가리라 생각함의 적이마음

이 위로된다

「네 김형순이오네 저도들었습시다 성안성밖게 유명혼지산가인줄도 암니다 돈만흔사람인줄 아라요

수일의 이말은마디에 심덕의얼굴은 술취흔사람갓치 붉어진다

「이번일은 나도홀두번 생각하야 본일이아니라 여러가지로 이리도 생각하야보앗고 저리도 생각하야 보앗스나 아모리 생각하야도 약가늑말디로 하는편이 제일일듯하더라 전일에 너와긋게 미진언약을 지금와서 왜 변하깃느냐 나는 너를 아달겸사위로알고 일후에는 우리너외가 양조하지안코 외손봉스 식이려고서지 마음을먹고 잇섯던터인데 엿지하야서 다룬디로 출가를식이깃느냐만은 본티우리집안은 강근지척이업고 너의집안으로 말하야도역시 고단하니 사람의집안이 항상이러케 무스한방법이 어티잇느냐 만일일조에 무슴일이 싱거나면 천척의도아주는힘이 적지아니호디 저 김형순(金瑩淳)의 집안으로말하면 지산도잇거니와 천척도반다하고 또논이세상에서어티를나셔든지 그사람은 조곰이라도 팔세치못하는고나 그리고 그사람은씩 우리집하고만 결혼을하깃다고하니 이괴회를 일치말고 쾌히허락하는것이 조홀듯하며 그런사람과 천척에 의(義)를 미저노호면 일후에 무슴일이잇드리도 손발기도 쉬웁지아니하냐



나는 이러흔 생각으로 하는 말이니 너는 조금 처라도 너 말을 크게 알아들어  
 서는 못쓴다 니가 조금이라도 리욕을 취하여서 돈만흔 부조스위를 엇고져  
 하여 그리하는 것이 아니라 너든지 순이든지 또는 늘근 우리네 의던지 모든 몸  
 을 다 위하여서 이 생각이니 너도 잘 생각하여 보아라  
 나도 너와 부조간갓튼 정리가 있는고로 이와긋치 의론하는 것이니 너도 이  
 늘근 것의 말을 거역지 말고 들어야 올치아느냐 너 소원은 내가 들어주고 네 소  
 원은 니가 또 들어주마 올에너도 학교를 맞치거든 밥먹을 것을 죽으로 썬어  
 먹드라도 너 혼자 학비를 위하여서 일본으로 유학을 시킬터이니 이삼년 후에  
 대학교(大學校) 졸업장을 타가지고 도라와서 너 마음을 기겁게 하여 주렴으  
 나 응

수일은 심학의 하는 말을 조차서 능히 그 심스의 엇더함을 가히 춘략(寸度)하리  
 로다  
 심학의 천언만어(千言萬語)로 삼춘지설(三寸之舌)를 룡략하여 말지아니함은  
 다만 리욕(利慾)이라 하는 글스즈를 가리우고 즈함이라 빈한(貧寒)한 스름은  
 간난을 능히 이지 못하여 도척질함은 니제상에 혹시잇는 일이라 그러나 간난  
 치아나고도 오히려 도척질을 참아하고져하는뇨  
 나도 더러운이제상에 는 왔는고로 더러운일은 스스로 아지 못하고 혹은 더러운

마음을 일으키며 혹은 더러운 형실을 짓는일이 업지아니하리 로다 그러나 스스  
 로 더러운 줄을 알고야 엇지능히 더러운 일을 행하리 오  
 안히를 파라셔 외국으로 유학을 간다

이것이 엇지 더러운 중에도 가장 심한 것이 아니라 오  
 이제상도 더럽고 이제상 스름들도 비루한 줄 알앗스냐 나는 항상 우리 은인된 심  
 령은 호을로 이제상 더러운 품속에 물들지아니한 스름으로 밋고 의심치아니하  
 앳더니

삼결긋치 지닌인 조고마흔은혜를 잊지아니하고 무의무탁한 외로운 아히를 다  
 려다기르던 그 마음은 가히 감스하리 로다  
 그러는 이제상에 스름은 모다 이와긋흔가 또는 나의 생각이 어리석은지 년리로  
 밋고 밋던 우리은인도 이와긋치 나를 속이는가 이제는 거제가 모다 더럽혔스니  
 슬퍼흔들 임의 더럽힌 제상을 다시 엇지하리 오 그러는 원제상은 다 더럽힌 스름  
 만 잇슬지언정 그중에 올연독립한 우리 두 스름은 결단코 이제상에 물들지아  
 니 하엿스리 로다

슈일은 못이저하는 순의를 다시 생각하다  
 니가 그 스름을 사랑하는 마음은 비록 죽는 것으로써 위협(威脇)하드리도 굴  
 (屈)하지 안을 것이 오 순의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서양 엇더한 녀황(女皇)의



머리우에 장식(裝飾)은 제계에 다시 쌓이업다 하는 금강석(金剛石)으로 사고  
조항여도 그곳은 마음은 능히 움직이지 못할지니

나와 저녀 조사이에 사랑은 진실로 진토(塵土)중에 싸인 백옥(白玉)과 갓도다  
나는 이제상에 더럽히지 아니할 할사름을 취하야 여러가지 더러운것을 이저  
바리사루다

슈일은 이와못치 생각하야 스스로 위로하며 비록심학의 의리업고 간스흔말  
에 분흔마음은 혼이업스나 억지로 사색을 보이지아니하고 공손이 듯고잇슬  
싸름이라

「그러면 이런일을 순이도 임의알았습닛가」

「응 조서이는 몰나도 티강은아마 어렴푸사 아노보더라」

「그런데 아즉 이일을 순이하고는 의론을못하섯.....」

「잠간 순이다려 무러보기는 하였지만은」

「그리서 무러보시닛가 티답이 무엇시리오」

「응 순이야 무엇이라고 말을하깃느냐 아바지 어머니 하시닛기로 싸라가지

요 하면서 별로히 실여하는 모양은 업드라」

결단코 진정의말이아니라 거짓썩미여 티이는말인줄노알되 조연이 그말흔마  
티에 수일의 가슴은 두근거린다

「그러니사 순이도 그일에티하야서 허락을하엿다는 말씀이온닛가」

「아무렴 허락하고 여부가잇느냐 그러하니 너도 쾌락을하렘으나 잠간싱각

하면 티말이 억지의말인듯하는 실상인즉 그러치아나하다 너가 지금이야

이흔말도 네가조서히 아라들엇깃지응」

「네」

「티말을 아라드러거든 너도 쾌히 허락하야지 네」너너 티답만히셔야 쓸티

가잇느냐 응 슈일아」

「네」

「그러면 너도 허락하깃다 하는말이나 그러면 나도 참 인제는 안심을하겠

다 조서흔이야이는 종초또 다시 말을터이니 이번에 네가이러케 너청을드

러주니 나도 네소원을 들어주깃드 허々々々」

「.....」

제철장 平壤寓居 (평양우거)

평양이라하는곳은 경성보다 그후(氣候)가 륝철일동안이는 느진곳이라 경성  
은 뜻이 만기하야도 평양은 비로소 뜻이피우기 시작하드겨우너 심흔치위에  
온돌에만 첩복하얏다가 화창(和暢)은 춘일(春日)을 만지면 평양시니(平壤市  
內)의 남녀로소를 물론하고 한번 이셔를타서 유쾌히놀기를 질길씩이라



때는 음력으로 말하면 삼월상순이오 양력으로 말하면 스월중순이라 얼골을 씻  
 치고 지니여가는바름은 싸뜻할듯 서늘할듯하야 품안에 감동되는데 만슈티(萬  
 壽臺)아리로 멀리티동강(大同江)을 건너서 쌀니여잇는 능라도(綾羅島)는 아  
 즈랑이가 가득히여 암물암물 눈이부시운티 먼곳으로조차 봄꽃을 먹느라고  
 미여잇던 송아지는 밍—하는소리 들니는데 그소리가 가장심는상다 그소리가  
 그치면 다시 솔나무에서 쇠소리가는다 바람도 업건만은 슈양버들(垂楊)가지  
 는 즈조흔들닌다 우러々보니 썩고리한마리가 스름잇슴을보고 놀녀 날아감  
 이라

순의(順愛)와 그모친은 각々우산을잡고 이곳 만슈티(萬壽臺) 우으로 올라온  
 다 그뒤으로는 계집아히 하인하아이 권연갑과 석류황(石硫黃)을 슈건에싸서  
 들고 싸라온다

순의는 너이키지아니하는 거름으로 우산을 의지하야 간신히 만슈티우에올나  
 스니 벗은쓰겁고 섬은흐른다 그뒤우에 로송(老松)이 두서너키서서잇는디그  
 그늘아리로 들어서서 몸을 소나무에의지하고 눈은 정신업시 티동강흐르는물  
 만 바라보고있다 그모친이 그엽잔티우에 펼쳐져안졌고 계집아히하인은 이  
 리저리로단니며 풀꽃을 싸노라고 그엽헤는와서 잊지아니한다  
 순의의 모녀두사람이 이곳으로 내려오는 신랑(新郎)되는 김중비(金重培)가

그곳 김산은행디비인(金山銀行支配人)으로 그곳에 집을건축하고 잇는더이오  
 또는 경성에서 혼인코즈하나 리슈일의 엽헤잇슴을쓰리여 아는듯 모르는듯  
 시고을와서 성례행면 이왕 성례된후에야 리슈일이가 아모리말을하기로 업천  
 물을 다시 담기어려운디에 비할뿐이라 김중비도 순의와 슈일의관계를 티감  
 드러아는고로 슈일이가 만일 엽헤잇스면 무삼 방히를홀는지 모르는고로 순  
 이모녀가 시각너로 평양에떠나 내려오게홀도 전혀 김중비의 계집중에서나  
 온일이라 경성에서 떠나 내려올때에도 김중비와 혼가지로 괴츠를타고 왔더  
 라

순의모녀는 김중비의 용전여슈(用錢如水)하는디에 마음이발서 스로잡힌티되  
 었더라

소나무에 의지하얏던 순의의몸은 어나뎃 소나무뿌리우에 주쳐안졌다  
 순의는 심중의 싸인근심의 병이지금껏 쾌복지못하얏는지 넓게 단장호얼골은  
 싹송아리에서 떠러진 싹입과꽃치 시드러서 괴운업는 모양갓다 지목하야바라  
 보는곳도입시 바라보다가 스스르 고기가 압호로숙으러지며 싹씩놀녀 간신히  
 히 묵어운고기를 드러서 쳐져잇는 나무가지를 치여다본다 순의는 무슴싱각  
 을하랴면 반다시 아리入입살을 악무는지라 순의는 지금도차로 입살을악물고  
 묵々하며 말이업더니



「어머니 엇더케하면 나는 죠와요」  
그림같은 경치를 스면으로 바라보기를 마지아니하던 모친은 이때에 비로소 고  
기를 뜯어게로 향하며

「엇더케하면 죠와가 다 무어시냐 그리기에 너다려 처음부터 의론을 하였지  
요스이 조식드른 아모리 어미아비라도 제게 무러보지안코는 결단하기가 어  
려워서 너다려도 헌말이아니냐 네가 처음부터 그리로가겠다고 하기때문에  
이렇게된일을 지금와서 다시 또……」

「그는 그것치요만은 아모리 생각하여도 슈일씨가 가엾셔요 셔을셔 아버지  
가벌셔 그말씀은 하였섯가요 네 어머니」

「아마 발셔 말씀하셨슬나」

슈일은 다시 입살만 씩물고있다

「나는 어머니 슈일씨는 다시 보지아니하고 발로 그리갈터이야요 그러하니  
그렇게 하여주시요 나는 얼골을 다시볼슈업셔요」

「그런데 목소리는 점점속으로 드러가고 아름다운눈에는 눈물이 차마우에 뚝뚝  
떨러진다 손을드러 썰러지는 눈물을 썰스려하는 그슈건은 다시 셔로만나지못  
할스름의 고통인줄은 그녀지도 알나로다

「네가저렇게 슈일이를 생각하고 있지못할것같으면 엇지하여셔 이췌부터 김

중비에게로 가겠다고 허락은 하였단말이나 그것케 스름의 조식이 좌우간에  
결단을 하지못하면 엇지하여서는말이나 지금이라도 좌우간에 뺨마음을결단하  
야셔 말씀을하면 어티든지 할곳은 과의를향겼다 나도 억지로는 김씨의집으  
로 너다려 가란말이아니라 과의할터이면 지금이라도 과의하여지 그것치만  
이디경사지된일을 지금와서 과의한다기로 저의셔 잘들어가 모르겠다……」  
「아니야요 니가 가기는갈터야요 가기는가지만은 슈일씨가 암만히도 가엾  
셔셔……」

그모친도 슈일의일을 위하는 주소로 생각지아니 하는날이없다 그쌀슈의가  
슈일의일함을 불을제마다 조식의마음은 스스로 범흔죄가잇셔셔 그죄를 느타  
니임갓치 생각이든다 그런고로 그모친은 이인연이 아름다운줄을 모름이아니  
로디 진실로 안심하고 깃버하는되는 일이지못하였더라 그러나 오히려 그쌀  
의 마음을 위로코조흔다

「네의 아버지께서 잘말씀을하시셔 슈일이도 아라드려셔 허락하였스면 그만  
이요 또네라도 저리로 시집가거든 슈일의일은 잘보아주렴으나 전에는스회  
로알고 잇섯지만은 지금부터는 슈양아달로알고있다 너도 슈양오라비로알  
고 이후라도 평생을 서로 신을신치말고 지니게하여라 이런말을드르면 슈  
일이기로 설마…… 그리고 스나희드른 너편네와달나서 결단스성이만으니



서 한번 결단하면 그만이지 너 갖치 속을 지글지글 터우고 잊지는 안으리라 네  
말은 슈일이 틀 불났치업다고 보지안코 가깃다 할지만은 그것은 네 생각이 잘  
못드러서 그러하다 서로 만나서 보고 피츠에 스세를 죄다 이익이 높고 서로 조  
흔났으로 떠나서 이후부터는 남미의 의(義)를 미져서 서로 원치안코 오리도  
룩 정다이 지되는 것이 조치안겠느냐 벌써 스쥬서지 밤아 늦코 혼인할 일서지  
할앗는디 슈일이 아니라 그버덤더흐스름이 해방하기로 인제야 되깃느냐 너  
는 벌써 김가의 집 사람이 되얏다 좌우간 오날이나 너일은 서울집에서 개별  
이잇스리라

순이는 나무에 의지할야 황홀(恍惚)한 정신으로 반은드르며 반은싱각하는디  
바람에 불니여 무릅우에 떠러지는 묵은솔입파리를 괴운업는손으로 집어다가  
입에넛코 씹는디 성(城)넘어 괴즈릉(箕子陵)솔밭속으로서 떠서로 흘러나오는  
색연리소리는 인간의 회포를 다시 돕는도다

순이는 우연이 뒤으로 도라다보니 만슈티(萬壽臺)아리로 십여간 동안이나 되  
는 광풍亭(光風亭)압 솔나무듬으로 약복입고 단장집흔 일위소년남자가 스면  
을 바라보며 올라오는데 순이는 나무그림자를 피할야 차서히 바라보더니 누구  
인줄을 짐작하였는지 홀연 얼굴이 붉어지며 몸을벌떡이러 철팔거름물너스며  
솔나무옆으로 몸을피할야스다 그사나회는 점점티우로 올라오더니 순이모친

을향하여

「아 여기게신것을 모르고 모란봉(牧丹峰)으로 영명스(永明寺)로만 츠즈다  
넛습니다 그러」

지금올나온 사나회는 김산은행 평양지점지비인 (金山銀行平壤支店支配人) 김  
중비(金重培)라 이사람은 원리로 천성이 침중(沈重)치못하며 일즉이 허외에  
유학하여 문물(文物)의 변화함과 생활(生活)의 풍족함만 생각하고 돈압하는  
무셔은물건도업스며 돈으로는 엇더흔 귀중할지위에 잇는스름이라도 너압해  
허리를 굽히게함이라 할야 경박할마음이 가슴에차던 스름이라

이날도 허외풍속에 오리도록 습관된마음이라 비록성례는 허지아니 할앗스되  
너의 안회는 안허라 무슴 그날이다 다라 오기를 기다리다 오 색은피고 일과는  
은화한디 스스로 이러는 흥을 의이지못할야 자기의 서로이건축한 집에잇던  
계집아 허하인을 보니여 산상에서 할로소창코즈 되시고오라 흥였던터이라 그  
모녀는 임의 금전에 스로잡힌 할키 동물이라 엇지조곰인들 거스르리오 그하  
인을싸라셔 이곳서지 올라오미러라

김중비는 그 계집하인을 썩짓는모양으로

「이년 이마님되시고 모란티로 오라니서 웨여괴잇서

「아니야요 선네가 지금그리로 되시고가려는데 여기서 다리를좀 쉬여가즈



고 마님씩셔 할셔셔.....」  
그부인은 황망이 계집하인이 발명을 하여 주노라고

「다리가 압푸기에 잠간쉬여가려고 그릿지 자네가 인제올나왔스니 더욱든든  
허이 섯투른곳에서 녀편네들만 다니기가 무섭드니」

모친은 정다히인스하며 일어는만나다 순이는 그편은향하여 보지도못하는디  
그사나최는 순이의 셔셔잇는 나무압호로 갖가이나아온다

순이의압호로 갖가이와셔 손사람은 눈이부시이는 금강석반지센손으로 옥으  
로 막우리흔 상아(象牙)단장을 집혔는디 그단장숫호로는 잔디틈으로 피어나

온 낭이쌍(薺花)을 툭々치며  
「웨 그러케 피날야섯소 학교의 단년녀조로써 그닥지 붓그림이 만단말씀이

요 허허허허」  
순이는 손을드러 입을가리우고 웃스며 고기를 저편으로 돌나는서음에 눈을

잠간드러 도둑야 처여다보니 김중비의눈도 또순이의 눈에있다 순이는홀  
연얼골을뚫키고 고기를 도리키는디 김중비는 이뉘에 질거움이 이제상에 다

시업는듯이 순이의얼골만 바라보고있다 그러나 그남조의 거만흔티도는조곰  
도 감하지아니하고 좌우로 녀여민관디빠와 스람인스조로 담은입살과 금테안

경을 코우에걸고 잇는모양은 가위점조는신스인테 하는모양이라

「자네가 악가 저계집아히년을 우리게로 보녀여셔 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  
신다가에 저년만 우리는설아왔다니 여괴올나안져셔보니 참말 속이 시원  
한것이 경치가조와이그려」

「그러하기때문에 이전부터 금슈강산(錦繡江山)이라고 일너오던데올시다  
그려 그러는 오날은되시고 소창도하러니와 제일엿줄말씀이잇셔々.....어쨌  
게서울집에서 편지가나려왔는디 은형일로 급히 의론이잇스나 잠간 다녀가  
라고 귀별을향였셔오 그리셔 오날밤에 떠나는 급행렬차(急行列車)로는 떠  
나가서 녀일제녀으로라도 다시 떠나는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엿지보셔  
든지간에 싸님을 허락하여유신바에는 어딴가든지 제안히올시다 그려」

「아무렴그렇치 다시말할인가」

「지금은」서로 초례는지너지 못하얏습니다만은 외국셔 혼인하는것으로보면  
혼인을 일우기전이라도 서로정다이 지녀다가 혼인날은 설오박어셔 례식만  
지니는것이올시다 조선셔는 이전부터 고루혼습관으로 혼인전에는 서로보  
지도안코 말도아니하는것을 저는쫓타고 칭찬할슈업습니다 장모씨셔도여괴  
루추흔 주막에서 거처하시나니보다 이곳에도 스오십간되는 제집이잇스니  
그집안처에와셔 멧철동안거쳐하시면 조치아니하릿습닛가 아모리도 멧철후  
에는 저괴섯는 순이시는 제집안 방 주인이될터이니 미리와셔 견습(見習)



를 하는 것이 낫지 안겠습니까... 허허허

부인은 실업손말노알고 다시 대답이 없는데

「여기 있는 집도 돈을 만히 되려서 지었답니다. 감이 갖가워서 경치는 좋코 각항 물건도 서울갓치 업는 것이 업고 정만잇서서 두너외가 살면 좋치안겠습니까 그러나 짜님은 이런 시골은 조화호지안치요 아마 부모가 서울 모도 계시니 부모를 그리워서 시골을 시려하기도 쉽지요 그러면 처가도 여귀한 처사서 드리지요」

「아이 말만하야도 고마우이 계집사람이 남편하는 대로 할 것이지 좋코 실은 에다가 특특설면서」

「아이 말만하야도 고마우이 계집사람이 남편하는 대로 할 것이지 좋코 실은 것이 어디잇단말인가」

「짜님이 아마 구경은 조와호지요」

「아희들이 되야서 구경이야 조와호고말고」

김중비는 허허우스며 깃거워 엇지 할 줄 아지 못하며

「여보슈이시 슈이시가 구경을 만일 조와호면 우리가 성례후후에 서달음은 신흔여행(新婚旅行)을 하야봅시다. 문명각국에서는 의례히 하는 일이니 신흔여행을 다만 조선너디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일본서지 건너가서 유명호에

를 구경호고옵시다. 그것게히서 돈도 좀 씀시다. 그러 돈은히서 무엇하릿쇼 너 말이올치」

「아이 슈이를 도라보아 그디답나 오기를 요구하나 슈이는 오히려 말이 업고 다 만부스그리는 우음만 되엇더라」

「그러나 여귀서만 구경을 하나가 경치조흔디가 하고만은데오 요념어귀즈릉(箕子陵)이란 데로가서 구경을 하시지요」

「너야 알슈가 있나. 즈네는 즈셔이알터이니 다리고다니면서 구경을 잘-식여 주게」

김중비는 몸을 일어서서 양복무릅을 느끼며 빙설웃흔 비단슈건을 너여 옷자락의 씨실을 썰고 다시 코와 입을 씻는 화로슈(花露水)의 향기로운 너음씩는 건 처에 편만(遍滿)하다

슈이와 그모친은 촉비하는 향기에 일시 놀너임을 마지아니한다

「자-날만 짜라들 오셔요 참 경치조흔데가 만이 잇지요. 아차너가 이적군 귀즈릉으로 지금은 갈터인디 거고는 예셔느려가기가 디단이험하야. 로인(老人)께서는 못가실듯하오이다. 장모씨셔는 저계집아히년다리고 여귀안저계시오면 저호고 슈이호고만가서 구경을 호고 올터이니 잠간만 기다리십시오」 「일이험하면 너야 참 갈슈가 있다고 그러면 네나가서 구경호고오려너」